

## “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풀어야’ 교회가 하나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 이시다. ‘본체시나’ 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에’ (생명)가 아닌 ‘프쉬케’ (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6)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 (7)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人 양성의 기독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 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몰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멀리로 특징 되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국장로신문 [1486호] 2015년 12월 19일에서 발췌-

<b>우리의 비전 (vis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li> <li>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li> <li>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li> </ul>	<b>서울교회 QR코드</b>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t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굽주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제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김인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티키노동자), 훈쿠아 땅, 땅,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쟁, 쟁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베, 벨,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 미얀마, 필리핀, 프로산트, 수레시, 수바스, 이경업, 알로퓸, 베시, 누뵤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찬(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복,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 권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서 울 교 회</b> 장 로 회	
	<b>SEOUL PRESBYTERIAN CHURCH</b> 원로목사 <b>이 종 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b>박 노 철</b>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믿음으로 살리라”

### ■ 롬 1:16-17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총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8-90여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도바울의 그들을 향한 격려와 권면에 대한 첫 대면에서 “로마의 성도들이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유양겔리온 Evangelium)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에 대해 성경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롬 1:2), 이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라는 의미입니다.

### 1. 복음이 세계 최강 로마를 굴복시키다

로마는 군사력 증강과 타 민족 국가들 보다 앞선 매우 체계화된 국가조직과 엄격한 법규로 통제되는 법치국가를 운영하는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로마에 전파되는 복음은 전혀 다른 성격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여서 황제가 통치하는 법치국가였던 로마제국의 기준에 상반됨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AD 313년 기독교를 승인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복음이 최강의 군사력과 법철학 국가인 로마를 굴복시킴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섬기게 됨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인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2.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베드로의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잡이와 관련된 환경과 조건에는 누구 못지 않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기쁨과 위엄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고기잡이에는 누구보다 조예가 깊은 베드로였지만 그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행하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는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은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등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견고한 반석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음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했고,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반복 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눅 8:25)고 꾸짖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을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을 주므로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습니다.

### 3. 믿음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꾸짖기도 하시고, 질타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몸소 보이시고 사랑으로 실천하시며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마태복음&13)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학자들은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 맺는 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련이 나타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 김제성 목사(국제신대 부총장)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김금준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치순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6: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8(사순절 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32(4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막 10:17-2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설 교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 가장 중요한 질문 ...	이수중 목사
* 찬 송 Hymn .....	438(49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서준권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b>지난주 성구</b>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살림권사회 임역원 모임 / 2일(주) 3부 예배 후 603호
2. 정기당회 / 5일(수) 수요예배 후 가이오 실

### ◆ 알 림

#### 1. 1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2.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3. 702호 예배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 4. 706호 예배

영어,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5.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6.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4월 세례식이 4월 5일(저녁 7시) 수요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로써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4월 2일(주일) 오전 10시20분까지 607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010-7743-322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이수중 목사 소개

명지대 (B.A)

장신대 신대원 (M.Div.)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Th.M)

Fuller-Acts 목회학박사 (D.Min)

온누리교회 원로목사

전주대 교목실장

서울강남노회 전 노회장

### ◆ 결 혼

1. 배재원 권(배중수, 박혜원 씨의 장남)과 이지원 양(2교구 이종열 집사, 이귀숙 권사의 장녀 / 4월8일(토) 오후2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성전(573-9686)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2. 고두성 권(고금주, 송미순 씨의 장남)과 백지연 양(16교구 백도환 집사, 석춘희 권사의 장녀) / 4월8일(토) 오후3시 대검찰청예식장 4층 예그리나홀(3480-2052) /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3. 김영우 권(김중환 집사,故 광경애 집사의 차남)과 김고은 양(10교구 김성철 집사, 양주화 집사의 차녀 / 4월8일(토) 오후6시30분 드레스가든 청담(512-1000) / (7호선 청담역 12번 출구

### ◆ 장례

- 1.故 홍옥희 님(12교구 김정선 성도의 모친) / 3월30일(목) 별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9명	240명	279명	1,398명	161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4/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3월26일	전주이월	119,527,000		
"	헌 금	38,689,660		십일조:29,571,000 주일:4,897,610 감사:2,770,000 교회학교:356,050 기타:1,095,000
"	특별예배비		1,070,000	부교역자 스텐 외
"	말씀봉사비		21,540,000	부교역자 사례 외
"	찬양대사례비		10,650,000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사라
"	교회학교운영비		328,000	사랑부 생일선물 외
"	비전2020		140,000	진중세례식용 컵 및 스티커
	급여		39,624,000	직원 급여
"	출 판 비		270,000	순례자 발행
	도서인쇄비		209,000	인쇄기 먹 잉크 5개
"	통 신 비		408,200	부교역자 전화료
"	차량유지비		400,800	부교역자 주유비 및 주차비
	세금과공과		111,760	교회안내판 / 도로사용료
"	복리후생비		495,310	병원비 외
	수도광열비		51,290	사택 가스료, 전기료
"	환경유지비		200,200	3월 세정제 교체
	수선유지비		537,390	유리문 문손잡이 외
"	보 험 료		5,973,930	교회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식당운영비		240,000	전체성도 김치
	합 계	158,216,660	82,249,880	잔 액 ¥75,966,780

\*2017년 1/4분기전교비:120,388,320원, 농어촌교회후원금: 20,900,000원

군선교비: 19,800,000원 수입(현금)부족으로 집행하지 못 함.

## 공의가 강물같이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 줄 알면 착각이다. 힘이 없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민초들이 입을 열고 움직이면 집의 기둥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까 보아 참고 있는 것이다.

잘난 사람들이 높은 데 앉아 모두 잘해 보겠다고 해서 맡겨 주었던니 말은 이들의 자세가 말이 아니다. 법을 만든 이도 집행해야 하는 이도 모두 법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정치의 본색이 그런 것이라 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라 샅군보다 못한 기생충 같은 이들이 국민의 혈세만 축재고 오히려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제발 이러지들 말자. 하늘이 무섭지 않다. 선거나 두려워하는 줄부 지도자가 되지 말고 법과 질서를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